

[사회]

언어 1등급 기준점수 91점

수리 나형 67점으로 최저...외국어 1등급은 2만10명

전국학력평가 분석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14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3 응시생의 1등급 기준점수가 언어 91점, 수리 나형 67점으로 나타났다. <표>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연합학력평가 채점결과 고3 응시생의 1등급 기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91점, 수리 가형 81점, 수리 나형 67점, 외국어 90점으로 집계돼 인·수·외 영역 중 1등급 기준점수는 언어가 가장 높고 수리 나형이 가장 낮았다. 고3 응시생 47만4천34명 중 언어 1등급은 2만953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42%였고 외국어는 응시생 47만3천862명 중 2만10명(4.22%)이 해당됐다. 15만4천명이 선택한 수리 가형에서는 4.29%(6천609명)가 1

■ 영역별 응시자 현황

영역명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체
응시인원	474,034	466,546	473,862	298,232	160,069	474,618
응시비율(%)	99.9	98.3	99.8	62.8	33.7	100.0

등급을 받았고 수리 나형 1등급은 응시자 31만2천546명 중 4.16%(1만3천7명)였다. 2등급은 언어 85점, 수리 가형 67점, 수리 나형 52점, 외국어 80점이며 3등급은 언어 78점, 수리 가형 53점, 수리 나형 37점, 외국어 66점 등이었다. 수리 나형의 등급 기준점수가 대체로 낮은 것은 난이도가 높았는 데다 학기 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리 영역을 포기하지 않은 고3 수험생 대부분이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언어, 수리 나형, 외국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 받은 학생은 3천36명으로 수리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 32만618명의 0.9%였다.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인 학생은 1천633명으로 수험생 15만4천명의 1.1%이다.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1등급 기준점수는 윤리 39점, 국사와 한국지리 45점, 세계지리, 경제지리, 경제 47점, 한국근현대사 37점, 세계사와 정치 45점, 법과사회 40점, 사회문화 42점 등이다. 과학탐구 영역의 1등급 기준점수는 물리 41점, 화학 39점, 생물 44점, 지구과학 44점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교조, 광주 모 초교 교장 쫓겨간 실태 공개

교사에게 '인사 사절' 받고 상납 요구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박재성)는 28일 광주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쫓겨간 실태'를 공개했다. 전교조가 광주시교육청에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장은 매주 월요일 아침 남교사는 정장, 여교사는 치마 정장 차림으로 학년별 부장 교사의 인솔 하에 교장실 앞에서 줄을 선 뒤 차례로 들어가 인사를 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관련 교사들은 매일 이런 식의 인사를 해야 했다. 여교사에게는 반드시 약수를 청해 일부 여교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설날 교사들에게 5만원, 부장교사들에게 10만원을 상납받았으며, 이 같은 행위는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그는 또 교내 비정규직 채용시 친인척 및 친구 등 지인들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학교장의 금품 상납 및 문인 인사 강요'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받아 자체 조사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시 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사실 규명 ▲학교장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와 부적격요원심사위원회 회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렴 정책 제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랑비 속 강풍·풍랑 3월 29일 (음 2월 11일) <전국날씨>

오후에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광주	주요도시	한두차례비	기온
광주	한두차례비	7~19℃	
주요도시	한두차례비	8~16℃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10~15℃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8~19℃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6~20℃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7~18℃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6~19℃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8~16℃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6~20℃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6~16℃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8~18℃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7~18℃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5~19℃	
한두차례비	한두차례비	7~18℃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12:04 썰물 < 04:22
여수 밀물 < 07:13 썰물 < 00:30

▲해돋이 06:25 ▲해질 18:51 ▲달돋이 14:46 ▲달질 04:14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30(금)	31(토)	4/1(일)	2(월)	3(화)	4(수)
날씨						
최저/최고	8/19	11/16	8/18	8/16	4/15	3/17

5·18민주묘지 새 단장 나선다

5월까지 타일벽화 새기고 추모관도 개관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28일 "지난 1998년 묘지 입구 맞은편 옹벽에 설치된 낡은 벽화를 없애고 5월초까지 새로운 타일 벽화를 새겨넣는 한편, 5·18추모관도 개관한다"고 밝혔다. 묘지관리소는 이를 위해 5·18 유족회·5·18 기념재단 등 관련단체,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짙레꽃', '5월의 붉은 꽃', '붉은 하늘' 등 3가지 도안을 놓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관리소는 다음주부터 공사에 들어가 5월 초까지 벽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새 벽화는 가로 50m, 세로 3.6m로 타일을 쪼개 붙이는 형식으로 꾸며진다. 관리소는 또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한 5·18추모관도 5·18 27주년 이전에 개관하기 위해 마무리 공사를 돌려주고 있다. 5·18추모관은 연면적 1천63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자료실과 전시실·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한편, '5·18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행사를 5월 18일 전후 10일간 집중 배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시민참여행사(3월12일~5월31일)▲정신계승행사(5월12일~27일)▲문화예술행사(5월7일~24일)▲청소년행사(5월17일~19일)▲광주국제평화캠프(5월14일~18일)▲광주인권상 시상식(5월18일) 등이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대법 "친족 예금 훔쳐도 처벌 불가피"

친족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 재산 범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정모씨는 2005년 8월 할아버지 명의로 휴대 전화 2대를 개설하고 통장에서 57만 원을 몰래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57만 원을 몰래 이체한 혐의에는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보고 사기죄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피해자가 친할아버지라는 점을 들어 '절도 등 재산 범죄가 가족 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컴퓨터 등 사용자기체의 형을 면제하고 형량을 징역 6월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28일 "거래 금융기관은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 환거래 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자금 이체로 인한 이체 자금 결제 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위험에 놓인다"며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특화거리 조성' 불발된 공사 호남의 대표거리인 광주 '충장로'에서 아스콘 포장 걷어내고 화강석을 까는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시는 2008년까지 모두 75억 원을 들여 충장로를 리모델링하는 '특화거리 조성' 1단계 사업을 지난 18일 착공했다. 시는 시민·상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후 1시까지만 공사를 하며, 준공 예정은 오는 6월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지하철 안전펜스 설치한다

7개의 사업자 공모 설치비 3억2천여만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준공 후 시설은 공사에 기부채납된다. 공사 측은 대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광고 사업권을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줄 예정이다. 광주 13개 지하철역 중 2곳(문화전당, 금남로 4가)에는 스크린도어가, 3곳(쌍촌, 금남로 5가, 소태)에는 안전펜스가 현재 설치된 상태다. 공사는 나머지 8개 역 가운데 7곳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역에는 스크린도어를 시설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초 개통예정인 1호선 2구간 7개 역에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 중이어서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 뒤 20여 개 가운데 10곳은 스크린도어, 10곳은 안전펜스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중위생영업자 내년부터 위생 교육 폐지

내년부터 공중위생영업자들에 대한 위생 교육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의 종사자 19만여 명이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교육 시간중 업무 등을 맡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또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 알선 및 음란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적정지 처분, 또는 면허 정지 처분 기간에 업무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목요일엔 밤 9시까지 주민등본 뺄 수 있다

오는 4월1일부터는 낮에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전국 행정관서의 주민등록·호적 관련 업무시간이 목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연장된다. 행정부는 28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지침을 보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민등록·호적 관련 사무를 매주 목요일에 한해 밤 9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권고했다. 낮 시간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관할 지자체에 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목요일과 방문 시간을 '사전예약한 뒤 해당일에 행정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수 참사' 부상자 가족 배상 등 요구 단식 농성

지난달 11일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부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적절한 배상 등을 요구하며 여수시청 앞에서 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28일 여성경찰에 따르면 부상자(17명) 가족 20여 명은 ▲부상자 1인당 3천만원 배상 ▲6개월 뒤 재입국 ▲후유증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항공료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배상 협의가 마무리된 사망자 유가족들은 30일 오전 10시 여수성심 병원에서 장례식을 갖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CANADA, SOUTHBAY COLLEGE OF TOM

한의대 입학생 모집!

한국의 전통 의학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캐나다의 명문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세요!

고려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지원

1. (1) 한의대 입학 지원서 접수
(2) 입학시험 (3월 15일 ~ 3월 25일)
(3) 합격자 발표 (3월 25일)

2. (1) 입학금: 1,000달러 (2) 등록금: 1,000달러 (3) 생활비: 1,000달러 (4) 학비: 1,000달러 (5) 보험료: 1,000달러 (6) 기타: 1,000달러

문의: 011-383-8283 (한국시간)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a

신뢰의 전통 이어가는 국민은행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명품수입도끼로 만든 전통하며 맛있게 차려드립니다

1. (1) 시제 (2) 제사상 (3) 차려드립니다

2. (1) 시제 (2) 제사상 (3) 차려드립니다

3. (1) 시제 (2) 제사상 (3) 차려드립니다

4. (1) 시제 (2) 제사상 (3) 차려드립니다

문의: 011-383-8283

국민은행